

지난 100년, 우리 출판이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 할 길

한 출판인이 회고하는 우리 출판의 자화상

한만년 | 일조각 대표

우리 근대출판의 연원인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일본의 《서양사정》을 비교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출판은 지난 10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서유견문》을 펴낸 지 80년만에 1만종 출간시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물론 새로운 세기에 우리 출판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러나 아날로그로서의 책의 장점과 디지털의 기술력이 상호보완된다면 우리 출판의 미래는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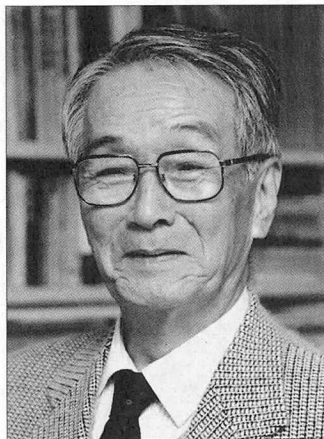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출판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새 천년 우리 출판이 나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청탁을 받았다. 지난날은 내 나름대로 쓴다치더라도, 새 천년 우리 출판이 나아가야 할 길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다.

《서양사정》과 《서유견문》 사이에 놓인 거리

우선 한국의 100년전 신식출판을 1895년에 발행된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살펴보자.

첫째, 그 간행시점이다. 이 책은 유길준이 사사했던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서양사정》은 1866년부터 1870년에 걸쳐 3편으로 엮여 서양 문명과 구미 5개국을 소개한 것인데, 전통적으로 동양의 선진국이었던 중국이나 한국 경유가 아닌 일본의 자국적인 서양 소개서다. 《서양사정》이 완간된 것은 유길준의 《서유견문》보다 35년 앞서며, 초판이 발행된 1866년을 기준으로 하면 29년이 앞선다. 개화기에 간행된 두 권의 서양 소개서가 25~29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그 발행부수의 비교다. 《서양사정》은 1866년부터 1870년까지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15만부가 팔렸고, ‘위판(僞版)’을 합하면



한만년
일조각 대표

20~25만부로 추정할 만큼 많이 팔렸다. 반면, 《서유견문》은 1894년 갑오경장 후 유길준이 원고와 출판비용(그때 돈 450원)을 일본 가는 길에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맡기고, 후쿠자와는 교순사(交詢社-출판사)를 통해 이를 편집한 후 한글자모가 있는 요코하마의 수영사(秀英社)에 맡겼다. 유학생 윤치호·어윤적의 교정으로 1895년 4월에 납활자로 1천부가 인쇄되고 양장제본이 되는 등 양식(洋式)으로 출판돼 한국으로 수입된 것이다. 이 자비출판된 1천부의 《서유견문》은 저자가 그때의 오피니언 리더이며, 정척수립자인 고관대작에게 일일이 배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재판을 찍었다는 기록은 없다.

셋째, 《서유견문》은 국한문 혼용의 시작으로 우리나라 저술과 출판의 모범이 됐다.

넷째, 비록 일본에서 제작됐다 하나, 한국내에서 그 이후 양식출판의 모범이 됐다.

다섯째, 일본에서는 《서양사정》의 해적판 발행이 문제가 돼 저자인 후쿠자와는 정부에 대해 저작권 개념을 설명하고, 저작권법 제정을 건의해 저작권법이 동양에서 처음으로 생겼다.

한일양국에서 내용과 취지가 비슷한 이 두 책이 지니는 여러가지 뜻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한국출판에 국한해 보더라도 그 출판시기의 30년이라는 차, 30배의 발행부수를 놓고 볼 때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때 시작된 국한문 혼용은 지금의 한글전용과 맞서서 그 장단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자를 아는 사람의 한글전용’과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의 한글만의 전용’으로 문제가 심각해져 간다. 또 세로쓰기는 해방 후 교과서의 가로쓰기가 시작되면서 가로쓰기로 정착됐지만, 자체(字體)가 세로쓰기용을 가로쓰기에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아 아직도 독서능률면에서 자체의 연구발전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비교는 일제강점기가 있었으니 그 연대차는 논해 무엇하랴(일본 1899년, 한국 1957년).

제작방법의 혁신적인 변화

《서유견문》 이후의 출판은 활판인쇄술의 도입으로 신문의 발행과 교과서를 비롯한 종교·아동도서 등의 출판, 그리고 광문사(廣文社) 등 개인출판사도 생겨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09년 통감정치하의 법률로 원고의 사전검열과 출판 후 납본검열의 이중장치로 출판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됐다. 해방의 기쁨을 맞아 국토분단일방정 출판의 자유를 누리려는가 싶더니, 6·25로 잣더미가 되고, 환도 후 간신히 복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신시대 이후부터 민주화까지의 시기에 사실상의 납본검열에 시달려 판금도서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출판의 자유는 몹시 위축됐다.

출판제작의 변화를 나라의 정책변동과 제작방법의 두 가지로 나눠보자. 정책면에서 큰 영향을 준 것은 1967년에 발표된 중학입시폐지인데,

이는 어린이책 출판의 붐몰을 뒀고, 철자법 개정은 출판계에 큰 혼란을 주기도 했다. 정치적인 격변과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출판시장의 부침도 만만치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초·중·고 교과서의 발행을 둘러싸고 국정과 검인정의 문제도 크게 살펴볼 문제다. 국정·검인정 교과서가 이권화된다 아니다 해 문제가 일어나 사건화되기도 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납을 녹여 주조기에 걸여 자모(字母)에 붓고 납활자를 만들어 원고대로 판을 짜고, 지형과 연판을 만들어 이것을 활판인쇄 제본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방식을 대별해서 한때 '핫 타입(hot type)'이라고 불렀고, 이와 반대로 '콜드 타입(cold type)'은 타이프라이터 또는 활자조판된 것을 전사(轉寫)해 옅색인쇄기로 인쇄한 것이다. 한때는 색도인쇄인 콜드 타입과 핫 타입이 인쇄의 주류로서 신문·잡지·도서가 모두 이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콜드 타입으로 대체됐다.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의 발달로 콜드 타입으로의 출판활동이 아주 쉬워졌다. 도서제작의 원가구성 비율을 조판·용지·인쇄·제본으로 대별하면, 핫 타입시절에는 조판의 비중이 아주 크던 것이 이제는 조판보다는 제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제는 조판을 출판사 내에서 자기 손으로 해결하게 됐다. 어쨌든 한글전용 출판은 조판비 절약과도 맞아떨어져 제작원가를 줄여줬고, 출판사로서는 신간출판이 핫 타입 시절보다 아주 쉽고 싸졌다. 저자가 손으로 쓴 원고를 출판사에 맡기는 일도 없어졌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유통문제

한편, 제작된 책의 판매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다. 일본식 위탁판매제도는 해방 후 몇 개의 유력 도매상의 형성으로 자리가 잡혀가더니 6·25로 무너져버렸고, 환도 후 전국적인 도매기구의 설립(일본식)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겨우 협동조합만이 설립유지되고 있는데, 요즘 뜻 있는 몇 분이 이 어려운 문제에 헌신하고 있지만, 장기 저리용자 등 정부당국의 공적 자금 투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자리를 잡고 발전할 것이다.

서점은 전국 각지에서 위탁판매라는 제도와

도매기구의 미비로 그 부침이 출판사만큼 심했다. 출판사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잘 팔고 대금도 잘 회수해야 살아 남고 돈도 만진다. 대금 회수가 안되면, 일차적으로 출판사, 그 다음으로 부실경영한 서점이 문을 닫는다. 그래서 출판사도 안전한 대금회수에 눈뜨고 서점도 경영문제에 열심이어서 이제는 자리가 잡혀가는 추세다. 서점의 대형화는 대규모 매장에 구색을 많이 갖추어 진열하는 것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홍보력 등 증소서점이 가지지 못한 이점으로 해서 늘어가 는 추세가 됐다.

출판사는 단행본이 아닌 대형기획을 세우게 되고(예 : 백과사전) 판매방식도 서점을 배제한 채 직접 독자를 찾아나섰다. 기획된 책에 따라 이런 방문 월부판매는 처음에는 대단히 성공해 방문 월부판매용 기획이 따로 생기더니(외판이라고도 했다), 기획의 고갈과 판매와 대금회수의 비용과다 등으로 시들해졌다. 책이 출판사에서 독자의 손으로 가는 경로를 조사해보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있어서 도표로 그려본 적도 있었다. 여기에 일부 도서에서 횡행하던 채택료 문제도 골칫거리였다.

《서유견문》으로부터 80년만인 1976년에 납본 건수가(학습참고서가 반이었지만) 1만종을 돌파해 그때의 우리를 즐겁게 해줬다. 지금은 2만9천 종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을 분석하면 여러가지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출판계에도 여러 단체가 생겼지만,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한국출판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몇가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가 있다. 도서의 공급문제는 정권 아닌 국가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 흔한(?) 공적자금은 왜 투입되지 않는 것일까. 출판의 투명경영을 위해서도 한국실정에 맞는 출판회계준칙이 마련돼야 한다. 개화기 이후의 도서총목록 편찬도 중단됐는데, 마무리지어야 한다. 각 출판단체는 출판계 전체를 위한 노력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

연간 발행종수는 많다 하나, 약간의 예외가 있다 해도 결국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종당 발행부수를 늘리는 길은 독자와 도서관의 확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출판의 장래는, 독자가 지금처럼 도서형태로 읽느냐, 우리나라 보유대수가 57만 대라는 PC

모니터에서 글과 그림으로 보느냐, 또는 이곳에서 인출(印出)한 것을 읽느냐는 세가지 비중의 경중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서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이용한다면, 처음에는 설비에 목돈이 든다. 도서의 제작면에서는 속기와 같은 워드프로세서, 자동번역기, 철자법 자동교정기, 음성으로 조판할 수 있는 장치 등이 머잖아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것이며, 각 제작과정의 자동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국내의 도서를 국내 서점들이 아마존이나 반즈앤노블, 일본의 몇 곳 등과 연결해 인터넷 서점을 열어 독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북클럽도 상륙했는데, 도서를 서점에서 만져보면서 내용을 살피고 사는 재래식 구입방법과, 목록이나 내용요약만 보고 인터넷으로 편하게 사는(비용이 들지만 집으로 배달이 된다) 방법이 생겼다.

책의 장점과 디지털의 장점이 상호보완돼야

외국에서 얼마 전부터는 도서의 내용을 디지털 화해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부수를 인출해서 도서를 만들어 독자에게 서비스하는 '온 디맨드' 방식도 생겨났다. 이 방식대로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출판사는 재고를 둘 필요가 없고 모든 저작물을 디지털화한 것만 움켜쥐고 견본이나 만들고 주문수요에 따라 인출하는 수동적인 영업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절판된 도서나 고가 희귀본 또는 도서의 일부 발췌 발행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백과사전과 같이 이미 디지털화해서 도서형태로서는 발행하지 않는 도서가 생겼다. 필요에 따라 해당항목을 수수료를 내고 꺼내 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서가 아니고는서는 가질 수 없는, 도서가 지닌 많은 장점을 살려 독자의 다양한 요구를 메워야 하는 부분은 점점 더 커지고 많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도서와 도서의 디지털화는 상호보완해서 양립하게 됐다.

이상으로 지금의 출판과 판매에 관한 가까운 장래를 예측해 봤지만, 몇천 년에 걸친 인류문화의 축적과 발전에 현재보다도 더 좋고 능률적인 방법이 딱 부러지게 무엇이겠는지는 필자의 소견으로 이 이상은 모르겠다는 것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